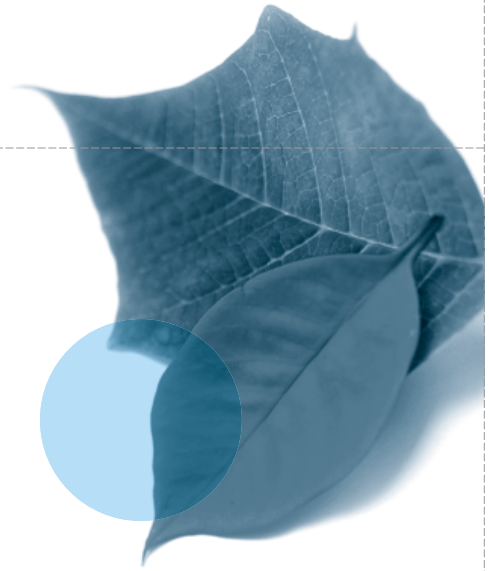


글 \_ 전홍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팀장

#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히** 망2005이웃사랑캠페인’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한 기부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강한 항의로 통화를 시작하였다.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이 분은 “익명으로 기부한 것은 기부사실을 알리기 싫어서였는데 언론에 나와 버렸으니 어떻게 된 거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여러 차례 이해를 구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서야 통화를 마칠 수 있었다.

## 기 부 자 의 정 보 유 출

수화기를 내려놓고 내보냈던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았다. 처음 자료를 만들 때 미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짧은 정보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경기지역 40대 공무원으로 도서관에서 근무...’ 사실 이 정도의 정보라면 얼마든지 대상자를 찾을 수도 있는 중요 내용들이었다. 특히 당사자의 경우는 누군가 그 기사를 보고 “혹시 김선생님 아니세요?”하고 묻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당황해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기부자들이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자신의 선행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소박한 마음과 함께 기부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일어날 어려움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수백억의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한 사업가는 그 사실이 알려진 뒤 각종 기관, 단체로부터 밀려드는 도움 요청에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출을 삼가야 할 정도로 시달리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 ‘나 만 의 비 밀 ’ 이 없 는 세 상

원칙적으로 기부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정보는 절대로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되는 것이며 기부자는 사생활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늘날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기부자

와 이를 찾아내 알고자하는 언론사들 사이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집단적 사고와 행동에 익숙해 ‘공익’ 또는 ‘다수의 의견’을 내세워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 특히 언론의 경우 더 빠르게 소식을 내보내기 위해 보도와 관련해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자주 있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폰을 통해 밀려들어오는 온갖 광고메일을 비롯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나 정보를 빼돌리는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활동으로 엄청난 국가적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연예인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인터넷을 뒤덮고 있어 이제 더이상 ‘나만의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 ‘실 명 의 나 눘 ’ 이 가 능 한 세 상 만 들 기

성서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나 높이 나 선행과 관련해 점양과 익명기부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이 말에는 사실 남모르게 선행을 실천하라는 뜻과 함께 작은 일을 크게 떠벌렸던 당시 기독교총의 허풍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기부자는 기관의 사명, 기부금품의 사용방식, 기부자의 의도대로 기부금품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기관의 역량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기부금품이 신중하게 다루어지는지, 비밀사항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더이상 자신의 선행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자유롭게 행하며 사회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본받는 사회, ‘왼손이 하는 일을 일부러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